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5)
주제: 대만: 당대 객가 문화 발전과 중심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15 회 강연에서는 국립 중앙대학교 객과어문 및 사회과학학과 초빙교수인 장한벽(張翰璧) 교수를 초청하여 「대만: 당대 객가 문화 발전과 중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장 교수는 먼저 대만에 있는 「객가 연구」의 개념이 2003 년 중앙대학교 객가대학(客家學院)에 의해 세워졌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해 장 교수는 객가대학(客家學院)에 들어가 객가의 학술적 기반과 지식체계 구축에 힘썼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집단, 이민 이론에 대한 객가 연구를 하였다. 장 교수는 원래 동남아의 객가 연구에도 참여하였으며 홍콩의 객가 연구에도 관심을 가졌다. 최근 객가 연구 발전의 중심은 객가대학(客家學院)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각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문화 수출 등의 방면이 모두 발전, 성장하게 되어 대만을 당대 객가 문화 발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객가」 개념의 수립: 이민과 서양 선교사

장 교수는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근대 객가 개념의 수립을 설명하였다. 「객가」 개념의 근원은 15-16 세기 민(閩, 옛 푸젠(福建)성), 광둥(粵), 간(贛, 지양시(江西)성의 다른 이름) 산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산 아래 지역, 해외 등으로 이주하여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을 「객」이라 불렀다. 이민 이론으로 보면 1850 년 전후 당시 객가는 여전히 집단 개념이 아닌 「이민」 현상이었다. 이 시기는 중국 화난(華南) 지역의 불안으로 인해 이주민들의 빠른 이동이 영향을 미쳐 객가인들은 산 아래,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이민 과정에서 사람들의 분류가 형성되었다.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민=객인(客人)’이며 당시 정치, 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객자(客仔)」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 다른 중요한 역사적 요인은 서양 선교사들이 객가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독일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 관습이 광둥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객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객가의 영문 표기 「Hakka」는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 과정에서 세운 지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객가의 최초 지식 체계는 19 세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원래는 객자(客仔)라 불리던 것이 「Hakka」로 바뀌었다.

객가 연구의 발상지-홍콩

1890 년대 식민지 홍콩은 상당히 중요한 선교지였다고 장 교수는 지적하였다. 홍콩의 교회는 밀집해 있으며 총독(總督) 등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객가의 지식 구축과 네트워크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1905 년 출간된 <향토역사(鄉土歷史)>는 객가와 푸라오(福佬)가 한족도 베트남 족도 아니라고 언급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1920 년 발간된 <세계지리(世界地理)>에서는 관동 산맥에는 객가 등과 같은 야만족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1911 년 객적(客籍) 「학자 이민」, 뢰제희(賴際熙)와 라향림(羅香林)이

차례로 입항하였으며 홍콩도 객가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다졌다. 1930-50년대 객가 운동은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동하였고, 라향임(羅香林) 등의 「객위한인(客為漢人)」 주장은 홍콩 사업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홍콩 숭정총회(崇正總會)는 상당한 네트워크를 넓혔다. 예를 들어, 일본 숭정총회(崇正總會)와 홍콩 숭정총회(崇正總會)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동남아, 미국의 숭정총회(崇正總會)는 모두 옛 화객(老華客) 공동체의 중심이다. 홍콩은 1970년대까지 객가 연구의 기점이 되었다.

객가 연구 중심의 전이: 종족이론에서 집단 이론으로, 대만의 주체성 구성을 배경으로

1980년대부터 대만의 다문화·계엄·사회운동의 발전·주체성 성립으로 대만은 점차 홍콩 객가 연구의 에너지를 이어받았다. 대만과 홍콩의 객가 연구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홍콩은 중국 대륙의 「비한(非漢)」 주장을 이어받았지만 대만은 이 논술 외에 사회 주체성, 다문화 집단의 영향에 의한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 네트워크의 발전이 다르다. 홍콩은 기업인 공동체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반면 대만은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 교류 협회, 학술 문화 협회가 많다. 셋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1960년대 이전의 홍콩 객가 연구는 「야만족(蠻族)」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역사학과 종족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객가 연구로 객가가 중원 한족의 혈통(中原漢族的血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만 객가 연구는 1970년대에 흥성하였으며 이들은 「집단」을 기반으로 논증하였다. 장 교수는 더 나아가 대만의 주체성 구축 과정을 설명하였다. 1949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주체성 구축은 1970-80년대 제 2의 경제 발전으로 노동자 계급의 출현을 이끌어낸 뒤 노동운동, 농민운동, 모국어 환원 등의 사회 운동으로 다문화 사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처음 대만의 「객가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연구는 여전히 대부분 역사학, 중국 및 대만의 객가인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만의 객가 연구는 점차 「대만 객가」를 논술 주체로 삼았다. 2000년 이후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객가 연구가 점차 제도화되면서 발전하였다. 객가 연구 축의 변화와 대만의 주체성 구축이 동등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만 사회의 주체성, 대만 관점의 객가 연구이며 기존 객가 연구와 다른 점이다.

대만에서 전 세계로: 주체성과 다원성 발전 영역을 넘나드는 객가 연구

장 교수는 대만 사회의 주체성, 다원성이 객가 연구 발전의 기초라고 지적하며 반성성(反省性)과 다문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객가본위(客家本位)」의 지식 가설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만에서의 객가 연구는 다원적이고, 영역을 초월하며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공공행정학, 미디어 등 각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객가 연구의 미개발된 관점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객가 위원회와 객가 연구원의 협력으로 교원 양성 및 전반적인 제도는 객가 연구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객가 연구는 그 주체성으로 인해 동남아, 전세계 화인(華人)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객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언과 집단을 통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사회적 과정을 관찰하여 객가 및 화인(華人) 사회 집단의 동질성과 차별성, 현지화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앞으로 대만 객가 연구를 시작으로 동남아와 글로벌 객가, 화인(華人) 현지화 연구, 동남아와 글로벌 종족, 이민 연구, 국가별 정치경제사회 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강연말미에 장 교수는 2023 년 대만에서 개최될 「세계 객가 박람회」를 언급하며, 이 박람회를 통해 객가가 하나의 종족으로 대만과 세계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